

격려사

자 승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시공(時空)은 벼들의 낱줄과 씨줄이어서 천하대지를 품에 안으니 법계(法界)와 사바(娑婆)를 초월하였습니다.

신묘년 대미(大尾)를 법화(法華)로써 마무리하는 혹한(酷寒) 지제에 불향(佛香) 부산에서 자비의 소식이 지축을 흔들고 있습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주지이시고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회장이신 정여스님께서 성보의 온전한 보호와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선서화전을 열어, 범어사 전철역 내에 불교문화재 테마전시관을 개관하는 것은 불조(佛祖)의 법향을 가득하게 하는 원력의 실천입니다.

지구촌의 문화교류는 촌음을 다투며 바람끝까지 구름끝까지 교차하는 시대에 여래(如來)의 법향(法香)으로 사바를 안온(安穩)케 하고자 무상의 부처님을 우리곁에 초청하신 야단 법석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범어사 창건유래로부터 역대 조사스님과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가람배치를 비롯하여 귀한 성보(聖寶)와 청정승가의 일상 등, 불교문화를 일반에 이해토록 하는 테마전시관을 개원하는 것은 한국불교 중흥의 효시가 되어줄 것입니다.

정관스님과 홍교스님 등 한국불교 원로대덕스님들께서 여
여하심에 수행의 법향이 자비로 적시는 불향의 도시 부산에
서 정여스님께서는 선묵(禪墨)과 선화(禪畵)에 조예가 깊어
예술의 세계가 대경지에 이르시니 한국불교의 보배요, 승가의
수행적 사표(師表)입니다.

범어사불교문화재 테마전시관 개관과 정여스님의 선사화전
이 육일승천(旭日昇天)하는 빛으로 부산불교와 한국불교중흥
의 시금석이 되시길 불전에 기원드립니다.